

# “조선·제조·농어업 분야 태국 근로자 추가 확보를”

### 김영록 지사-태국 노동부장관, 인력교류 확대 논의 전남 필요인력 지방정부간 협약 체결 지원 등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또 다시 태국 정부 수차 총클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상호 인력 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태국 수차 총클린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태국 우수 인력 수급 및 상호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차 총클린 노동부 장관이 태국 근로자의 한국 진출 확대 및 격려자 방문에 이뤄졌다. 김 지사가 지난 1월 태국을 방문해 근로자 인력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한 지 5개월 만이다.

간담회에서는 전남의 조선업, 제조업, 농어업 분야 태국 우수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및 이민 활성화 등 상호 협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실제 전남지역의 경우 조선업 수주 호조에 따라 500여명의 외국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남에는 베트남 888명, 우즈베키스탄 725명, 네팔 407명, 중국 444명, 태국 280명, 기타 657명 등 총 3천464명의 외국인력이 현대상

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에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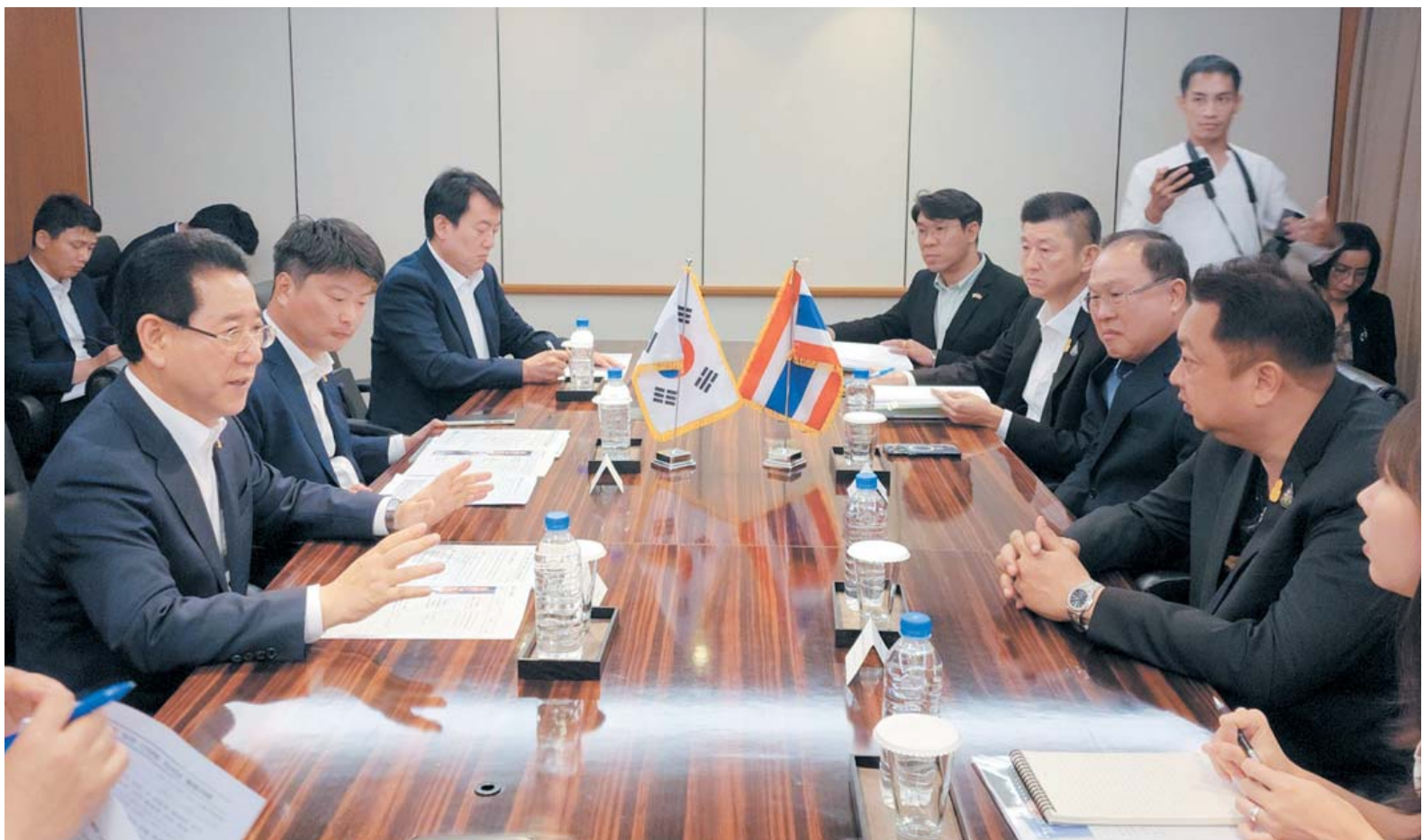
김영록 지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조선업, 농업 등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태국의 더 많은 우수 인력이 전남에서 일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 필요인력 요청 시 지방정부간 인력 지원 협약 체결 지원 ▲근로자 모집·선발·교육·검증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협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차 총클린 장관은 “태국의 많은 젊은이가 한국에 진출해 한국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그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전남도는 태국 정부·광역단체와 외국인 인력 관리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1월 태국을 방문해 수차 총클린 장관과 면담을 갖고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농어업 근로자 인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태국 수차 총클린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태국 우수인력수급 및 상호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당시 김 지사는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가 제도 개선한 ▲연간 조선업 기능인력 2천명에서 5천명 확대 및 별도 쿼터 신설 400명 ▲외국인력 특화비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도입을 위해 대기 중인 비자 신속 처리 ▲지역 /김재정 기자

## “전남 해상풍력 투자기업 전폭 지원”

### 김지사, 덴마크대사관서 글로벌 해상풍력 리더와 회동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주한 덴마크대사관에서 열린 글로벌 해상풍력 네트워킹 행사에 국내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전남 해상풍력 투자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김성권 CS윈드 회장, 톨슨 스멧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부회장, 한승수 노스랜드파워 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해상풍력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군 작전성 문제를 전남도가 앞장서 규제 개선은 건의 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해상풍력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전용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산업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며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 갖춰지도록 발전사에서

도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갖춰가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있는 전남은 해상풍력의 최적지로서 기회의 땅이 되도록 전남 투자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이날 다시 만난 김영록 지사와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은 터빈공장 설립 등 해상풍력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남 도청 접견실에서 스펠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와 만나 전남 해상풍력발전 단지 적기 건설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 남·북구도 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복지부 공모 선정...4개 자치구 시행

광주시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수행 지자체로 남구와 북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6월 서구를 시작으로 현재 광산구 등 2개 지자체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남구와 북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데도 한 달 이상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는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남구, 북구가 선정됨에 따라 업무 절차, 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서구·광산구 수범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따른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등 자치구와 협력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 기자

##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대통령실에 현안 건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갖고 전남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광주-고흥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순천-광양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대통령 지역공약 조기 추진 등이다. /김재정 기자

김 위원장은 또 오는 10월 목포시 등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과 축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이 글로벌 시대 선도를 위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속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교육대전환을 위한 독서인문교육포럼

# 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만든다

일시 2023년 7월 3일(월) 14:00 ~ 장소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전남도교육청과 광주매일신문이 함께 교육대전환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7월 3일 오후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열리는 독서인문교육 포럼은 ‘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통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방안과 대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독서인문교육포럼에 관계자는 물론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제발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토론** (좌) 이상래 전라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 팀장 (토론자) 김춘식 동신대학교 교수  
 이대운 순천북성고등학교 교사  
 이윤하 목포해인여자고등학교 학생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황기웅 흑산초등학교 교사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 650-2078

\* 본 토론회는 전남교육TV와 광주매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주최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주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